

# 장성군 황룡강변 100억 송이 가을꽃축제 준비 마무리

장성호 하류 9만1800㎡ 부지  
백일홍·코스모스 등 파종 마쳐  
10월 7~15일 9일간 축제 열려  
김한중 군수 "감동과 휴식 선사"



김한중 장성군수가 18일 장성군 생활개선회와 4-H(에이치)연합회 회원 50여명과 함께 가을꽃밭 포토존 중 한 곳인 '해바라기꽃밭'에 해바라기를 심고 있다. <장성군 제공>

강변 따라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꽃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장성군이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준비로 분주하다. 올해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 동안 열릴 예정이다. 장성군은 최근 황룡강과 장성호 하류 9만1800㎡ 부지에 가을꽃 파종 작업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축제를 3개월 앞둔 7월부터 꽃씨 파종을 시작해 매듭지었다. 백일홍, 천일홍,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기존 가을꽃축제 초화류에 더해 올해는 보랏빛 벚꽃마련 초와 촛불맨드라미를 추가로 심었다. 벚꽃마련초는 손꼽힐만한 작은 꽃들이 웅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운 꽃이다. 타오르는 촛불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모양이 인상적인 촛불맨드라미는 군락을 이뤘을 때 장관이 연출된다. 앞서 지난 18일 새벽에는 김한중 장성군수와 장

성군 생활개선회와 4-H(에이치)연합회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가을꽃밭 포토존 중 한 곳인 '해바라기꽃밭'에 해바라기 7만여 그루를 식재했다. 행사에 동참한 김 군수는 "100억 송이 가을꽃으로 화사하게 장식될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방문객에게 감동과 휴식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가을꽃 식재 작업이 마무리된 황룡강에는 9월 하순 무렵부터 형형색색의 가을꽃이 피어나기 시작해 축제 기간인 10월 초-중순 본격적인 개화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함평읍 중앙길 620m 2026년까지 폭 18m로 확장

군비 166억원 투입

함평군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함평읍내 중앙길 도로확장 공사를 한다. 현재 함평읍 도시계획도로 중앙로 일대는 일방도로로 폭이 협소하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도로 통행과 상가 이용에 불편이 많다.

함평군은 군비 166억원을 투입해 중앙길 620m를 18m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함평군은 양복 2차선 및 주차공간, 보도를 확보하고 전선 지중화로 도심 미관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행로에 콜링포트를 도입해 주위 온도 저감과 대기질을 개선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현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입된 건축물 철거를 진행 중이며 2026년까지 중앙길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로 상가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장흥 시골 할매들의 에세이 '어메, 나를 찍는당가 여럽고로!'



장흥 용산면 어서마을·덕암마을 할매들이 오는 10월 사진 에세이 전시회를 앞두고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장흥군 제공>

10월 중 사진·글 모아 전시회

장흥 용산면 어서마을과 덕암마을 할매들이 오는 10월 사진과 글 전시회를 열어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장흥문화공작소는 지난 6월부터 '전라도 할매들의 사진 에세이-어메, 나를 찍는당가 여럽고로!'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장흥군이 '2023년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의 하나인 자율기획형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되고 있다. 장흥문화공작소는 '모두의 예술'이라는 주제를 두고 용산면 어서마을·덕암마을 할매들과 지난 6월부터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를 하고 있다. 참가 할매들은 삶의 긍정적인 모습을 담고 공동체 친밀감을 강화하기 위해 일상에서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할매들이 직접 만들어낸 사진과 그림, 이야기를 모아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장흥=김용호 기자 chunghwa@kwangju.co.kr

강진군 23일부터

2차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강진군은 오는 23일부터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진군은 지난 5월 중순 접종을 시작해 500명 접종을 마무리했다. 이번에는 1000명분 약품을 확보해 다시 접종을 시작한다. 강진에 사는 만 50세 이상(197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면 누구나 무료 접종할 수 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강진군 보건소(061-430-5235, 5236)를 찾으면 된다. 대상포진 접종을 이미 했거나 암 치료 환자, 활동성 결핵 환자 등은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 이미 대상포진을 앓았어도 회복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접종할 수 있다. 강진군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하루 접종 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선착순에 들지 못한 방문자는 접수증을 나눠줄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담양형 향촌돌봄' 추진계획 공유 간담회

세부 계획 28일 발표

담양군은 오는 28일 '담양형 향촌돌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담양군은 지난 18일 향촌복지 실무 추진단 12명과 담양형 향촌돌봄 추진계획 공유 간담회를 열었다. 담양형 향촌돌봄은 민선 8기 군수 대표 공약으로, 향촌복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하고 있다. 주거와 의료, 요양, 돌봄을 담양군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고령 주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담양형 향촌돌봄의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요에 맞춘 현장 중심 돌봄을 제공하는 향촌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담양군이 '담양형 향촌복지' 추진계획 공유 간담회를 최근 열고 막바지 계획 점검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나섰다. 오는 28일 열리는 세부 추진계획 발표회에서는 민간단체, 기관에 향촌복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항인 새로운 효도 행정 '향촌복지'를 반드시 실현해 어르신들이 담양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n@kwangju.co.kr

## 부르면 어디든 갑니다, 나주콜버스

9월부터 혁신도시 운행 시작

민선 8기 대중교통 정책 첫 결실

승객이 부르면 오는 신개념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나주콜버스'가 빛가람혁신도시를 달린다.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혁신도시(빛가람동) 버스 승강장 어디서나 탑승 가능한 '나주콜버스'가 6개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나주콜버스는 대중교통 보조금은 줄이고 서비스는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둔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 정책 중 하나로 새롭게 도입됐다.

콜버스 개념의 대중교통은 전남지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이 버스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 없이 앱(App) 또는 콜센터를 통해 승객이 호출하면 원하는 목적지(승강장)까지 최단 거리로 운행한다.

이용 방법은 앱(나주콜버스 또는 바로DRT)과 콜센터(1533-5015)에서 버스를 호출하면 빛가람동 내 버스승강장 71곳에서 승·하차할 수 있다.

버스는 15인승 총 5대가 운행하며 요금은 기존 버스와 동일한 일반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이다. 하차 단말기 기준으로 동일 노선을 제외하고 2회까지 환승이 가능하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30분부터 밤 10시30분으로 밤 10시까지 호출을 받는다.



승객이 부르면 오는 신개념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나주콜버스'.

승객이 호출을 했다가 1시간 내 3회 취소하면 1시간 동안 호출이 제한된다.

나주시는 본격적인 버스 운행에 앞서 오는 31일 오전 10시 빛가람전망대 주차장에서 버스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빛가람동 나주콜버스는 정해진 버스 시간이 아닌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혁신도시 여건에 딱 맞는 혁신적인 대중교통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 "도내 최초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한 만큼 시범운영 기간 효과성을 검증하고 무엇보다 이용 승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쾌적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 다도참주가 장연수(오른쪽) 대표가 개발한 한라봉 가미 맥거리 '라봉'이 2023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가운데 운병태(왼쪽) 나주시장이 수상을 축하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나주 '라봉'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대상'

탁주 부문...농식품장관상 수상

나주 소재 '다도참주'에서 나주 특산물 한라봉을 가미해 개발한 '라봉 맥거리'가 국내 최고의 탁주로 인정받았다.

나주시에 따르면 다도참주가 장연수 대표가 출품한 '라봉'이 2023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라봉은 전남도내 양조업체가 출품한 술 중 유일하게 수상 반열에 올라 영예를 더했다.

우리술 품평회는 국가가 공인하는 주류품평회로 우리 술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품평회는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관으로 탁주, 약·정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전국 199개 양조장에서 총 312개 제품이 출품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 15개 제품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라봉'은 한라봉 특유의 상큼하고 상쾌한 내음에 은은한 단맛으로 품평위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대상을 수상한 라봉은 상금 500만원과 더불어 추석 명절 전 유통업체 초청 시음회, 바틀샵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판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나주시 관계자는 "라봉으로 지난해 남도 전통주 품평회 대상에 이어 올해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다도참주에 축하를 전한다"며 "나주 농산물이 만든 우리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야영 명소 자리매김

한 달 평균 1000여명 찾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인근에 마련한 '고인돌 오토캠핑장'이 야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고인돌 오토캠핑장 이용객은 6월30일 기준 6200명으로, 한 달 평균 1000여명이 이곳에서 야영을 즐기고 있다.

지난해 5월6일 문을 연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같은 해 말까지 7600명이 이용했다.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41개 면을 갖추고 있다. 즉구장과 사위실, 취사장, 화장실 등 편의·체육 시설도 마련됐다. 비수기 평일(일-목요일)과 공휴일에는 이용 요금이 2만원이고, 비수기 주말(금-토요일·공휴일 전날)과 성수기(7-8월)에는 2만

5000원을 내면 된다.

인근에는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바로 구할 수 있다.

또 가족 단위 야영객이 즐길 만한 선사 체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거석 테마파크도 야영장 이용객들의 볼거리가 되고 있다.

오는 10월20일부터 29일까지 열릴 동안에는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서 열린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답답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을 즐기고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용객들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야영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